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월 29일부터 모든 접종 대상 성인은 모든 뉴욕주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서 비예약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

모든 백신 제공자에게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비예약 접종을 실시하도록 권고

비예약 접종은 1차 접종에만 적용

*존슨 시티 가넷 드라이브 10에 위치한 대규모 접종소는 같은 주소지의 건물 내부로
이동하여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기상 상황의 영향을 줄일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4월 29일 목요일부터 모든 뉴욕주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는 모든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비예약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예약 접종은 1차 접종에만 해당되며, 2차 접종 일정은 1차 접종 시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또한 모든 백신 제공자는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비예약 접종 실시를 권고받았습니다.

주지사는 존슨 시티 가넷 드라이브 10에 위치한 대규모 접종소는 같은 주소지의 건물 내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기상 상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면, 더욱 신속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해 새롭고 더욱 나은 뉴욕주와 경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뉴욕 주민들이 손쉽게 백신에 접근하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접종 지침에 따라 모든 접종 대상 성인은 모든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실시됩니다. 4월 23일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보데가, 식료품 점 및 슈퍼마켓 노동자 대상 비예약 접종이 가능한 [신규 팝업식 예방 접종소 다섯 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총 다섯 곳의 자치구에 취치하며 각 접종소는 근로자를 위한 백신을 포함한 총 400회의 선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Jim Malatras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많은 학생들이 여름을 맞아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뉴욕주가 학생을 위한 백신 접종 요건을 완화하여 이동 조건, 지리적 상황, 예약 등의 걸림돌에 관계 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부터 16세 이상의 뉴욕 주민은 주정부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에서 비예약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올 가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월 21일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23일 금요일부터 [대규모 예방 접종소 16곳](#)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비예약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 따라 일부 접종소에서 비예약자들은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원 증빙 및 보험 정보(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